

아르누보 거장 알폰스 무하를 만나다



롯데갤러리 30일~7월 26일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전
광고포스터 등 석판화 30점 전시

아름다운 여성과 화려한 꽃은 알폰스 무하의 트레이드 마크다. 무엇보다 석판화로 찍어낸 화려한 그의 포스터는 상업 미술의 영역을 예술로 업그레이드시키며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알폰스 무하 :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전이 30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롯데백화점 11층)에서 열린다. 아르누보 대표작가이자 체코 국민화가 알폰스 무하(1860~1939)의 작품이 광주에서 대규모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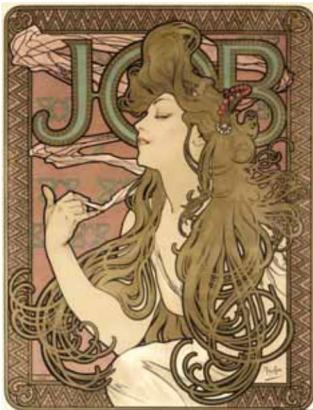
1900년대 초 ‘포스터 예술가들의 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식 예술가’ 불렀던 그는 회화, 조각 뿐 아니라 포스터, 인테리어 장식, 포장과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상업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다재다능한 미술가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방식과 크기 그대로 재현한 한정 판화 30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무하재단에서 1993년과 1997년 사이 뉴욕 아카데미 칸 아틀리에와 함께 제작한 석판화로 알폰스 무하가 창조한 원본 컨셉을 지켰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스터, 잡지 표지, 광고 디자인, 장식 패널 등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여성과 꽃들을 소재로 한 장식 패널은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이미지를 다양한 모습의 여인상으로 묘사한 ‘사계 1999년 버전’과 춤, 회화, 음악 등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묘사한 ‘예술’ 시리즈도 눈에 띈다. 또 토포즈, 루비 등 화려한 보석을 소재로 한 시리즈도 전시된다.

상업용 광고 포스터를 ‘예술 포스터’의 세계로 끌어올린 네슬레와 샤페인 모에상동, 담배 율 등 브랜드 홍보 포스터 등도 흥미롭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ucha Trust... '음'



©Mucha Trust... '예술-회화'

160년 역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순천 찾는다

7월 3일 문예회관 대극장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출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순천을 찾는다. 7월 3일 오후 7시30분 순천 문예회관 대극장.

1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번째 내한공연인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알폰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독일과 프랑스의 반목되는 전쟁 속에서 소속이 바뀌는 아픔을 겪어왔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프랑스와 독일의 색채를 동시에 흡수하며 명성을 이어왔다. 또 베를리오즈를 비롯해 브람스, 말러, 바그너, 슈트라우스 등 당대의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지휘했던 오케스트라이기도 하다.

지휘봉은 마르코 레토나가 잡는다. 그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빈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



마르코 레토나

강동석

로 스트라스부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연주회는 베를리오즈의 '르 코르세르' 서곡이 연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35'를 협연한다.

마지막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의 에피소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환상교향곡'은 베를리오즈가 자신의 실연을 소재로 삼은 표제 음악이다. 티켓 가격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61-749-86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연극감상교실 상상나래' 참가 청소년 15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극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연극감상교실 상상나래'에 함께할 청소년 1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연극감상교실 상상나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에 광주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돼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연극단체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7~11월까지 월별로 총 5개 기수로 나눠 기수별 4회 교육을 갖는다.

4회 프로그램은 ▲연극에 대한 기본 이론을 이

해하는 '연극의 이해' ▲공연장 분장실을 비롯한 배스테이지를 투어하고, 알아보는 '공연장이 하는 일' ▲티켓 발권부터 공연 관람까지 직접 경험하고 배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연감상' ▲공연감상 느낌 발표 등을 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구성된다.

오는 7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오는 26일부터 5개 기수별로 선착순 30명, 총 15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226-2446, 062-670-793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7월 5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제13회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AsiaYoung Art Festival-이하 아시아프)이 오는 7월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아시아프는 조선대 한국화 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2004년 발족했다.

이번 아시아프 전시에서는 미래 한국화 화단이 이끌어갈 청년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김빛나, 김다인, 김솔, 김혜리, 이영은, 장예슬, 조주희, 최나래, 최소애 등 9명으로 모두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아시아프는 다양한 세미나와 다채로운 미술행사, 전시를 통해 호남 한국화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 산책'

광주여성영화제...30일·7월 1일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광주여성영화제가 진행하는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 산책' 첫번째 행사가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청소년 삶디자인 센터 라발라홀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이해란 감독의 '우리들은 정의파다'(사진). 남성 중심 여성노조를 뒤엎은 최초의 여성노조이자 민주노조를 설립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 이야기다. 영화 상영 후 이해란 감독과 씨네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7월 1일 오후 2시에는 지난해 7회 광주여성영화제를 찾은 '불온한 당신'의 이영 감독 작품인 'Out : 이번집결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난다. 미디어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10대 레즈비언들을 주인공으로 한 성장영화다.

이번 '페미니즘 영화인문학 산책'은 작품들을 함께 보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오는 8월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박남욱 감독의 '미망인', 심은경 주연의 '걷기왕' 등이 예정돼 있다. 세번째 강의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cafe.daum.net/wffig)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wffig)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515-6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